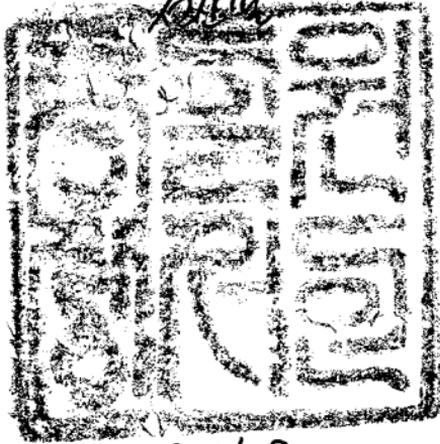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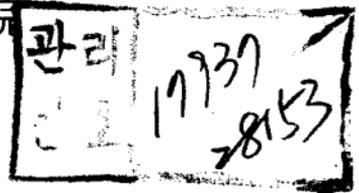
社會主義國家의 變化相

康 仁 德 (極東問題研究所長)



28/53

統一研修院



차 례

1. 序 論	3
2. 變革의 根源 — 社會主義體制的 矛盾累積	7
가.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的 限界露呈	7
나. 反民主的 一黨獨裁體制	14
다. 反人間的 全體主義社會體制	17
3. 改革이후의 東歐諸國의 變化	24
가. 政治體制的 變化	25
나. 經濟體制的 變化	31
다. 社會的 變化	39
4. 結 論	44

1. 序 論

지난 2년간 세계는 어느 賢人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巨大한 地殼變動이 일어났다.

1989년 페레스트로이카라는 改革의 파도가 한 덩어리 바위처럼 요지부동하게 보였던 東유럽 5개국을 강타하여 社會主義體制를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冷戰의 象徴이던 베를린장벽을 허물고 마침내 獨逸의 再統一을 실현하였다.

왜 東유럽에서 改革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무엇이 소련형 社會주의를 것처럼 무참하게 좌절시켰는가?

이에 대하여 전 폴란드 통일노동당(공산당)의 유능한 당원이었고 1968년 國外追放處分을 받아 영국에 亡命한 옥스포드大學의 코라코프스키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스탈린時代에 소련형 社會주의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배겨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직접 보아왔다. 나는 공산주의 未來의 榮光을 위해서는 이런 고통쯤은 참고 이겨내지 않으면

矛盾을 낳는 결과로 되었다는 것이다.

따져보면 1956년의 헝가리 暴動이나 폴란드의 포즈나니暴動 그리고 1968년의 「프라하의 봄」등 사회주의 역사속에 음각된 民衆蜂起는 그 어느 경우에 든 經濟的 破綻에 대한 不滿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폭동들이 좌절됨에 따라 民衆의 經濟的 要求는 體制變革要求로 발전되어 經濟體制 改革과 政治體制 改革을 接木시켜 하나의 改革으로 발전하였다.

1989년 이후 동유럽에서 일어났던 改革은 바로 이러한 政策的 過誤들이 축적된 결과로 폭발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989년 6월 中國 北京에서 일어났던 「天安門事態」는 經濟的으로 開放體制로 나아가면서 政治시스템은 一黨獨裁를 계속 유지하려는 中國共產黨의 딜레마를 표출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모스크바 歷史古文書大學 學長이며 소비에트 人民代議員인 아파나세프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 變革의 根源—社會主義體制의 矛盾 累積

社會主義國家의 變革을 규명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政治, 經濟, 社會的인 모순을 중심으로 變革의 動因이 무엇이었는가를 지적하기로 한다.

가.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의 限界露呈

1990년 4월 20일자 이즈베스치야紙에 실린 보로비요프의 논문 「레닌과 우리의 역사적운명」은 오늘날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개혁을 맞지 않으면 안되게 된 책임을 레닌의 볼셰비키혁명 때문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레닌과 그의 지도하의 볼셰비키당은 러시아史의 발전을 正常的인 길로 부터 그 行方을 알 수 없는 길로, 그것도 가장 큰 不幸을 지냈던 사회주의 길로 강제로 그 方向을 돌림으로서 러시아史에 暴力을 가하지 않았는가. 인민에게 엄습해온 갖가지 재앙은 바로 레닌의 罪 때문이 아닌가? 만약 그에게

태까지 발전돼 있어야 한다는 大前提가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이 가르친 「역사발전의 必然的 法則」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최초로 마르크스主義에 따라 일어난 社會主義革命은 이처럼 최대한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에서가 아니라 전인구의 80%가 농민이던 러시아에서 일어나 성공한 것이다.

이제 겨우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들어선 러시아에서는 敵對階級인 부르주아지가 축적했어야 할 「富」가 존재할리가 없었다.

아담·스미드가 말한 「資本의 先行的 蓄積」이든 마르크스가 말한 「資本의 原始的 蓄積」이든 社會主義革命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富의 축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러시아에서는 이런 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國家權力을 이용하여 위로 부터의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그의 代理人을 人民大衆 위에 군림케 하고 지극히 擄取的이

重工業, 대규모 집단경영에 관한 마르크스主義 理念을 실현한 결과 1928년에 또다시 위기적 상황에 빠지고 있었다. 集團化를 것처럼 강행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반대로 공업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農産物의 가격을 높여야 옳았다. 그러나 調達問題, 즉 농민들의 농산물 納入 기피현상을 해결하는데 있어 黨은 「힘」이라는 것에 의존했다. 농민 모두를 콜호즈에 강제편입시켰다.

1928~32년 농민이 강제로 끌려 들어간 콜호즈는 그것이 협동농장이 아니라 實質的인 收容所였다. 거대한 감옥수용소였다. 이것이 특히 명백했던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南部러시아의 諸州였다. 대규모의 기근이 人爲的으로 일어났다. 農民들은 자기 부락에 있었지만 軍隊에 의해 포위되었고, 그저 굶어 죽는 길밖에 없었으며 한편, 都市 역시 軍部隊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다. 農民들은 농촌에서 도망쳐 나올 수는 있었지만 都市로 들어 갈수는 없었다.

이 기근의 결과 여러통계를 종합해 볼때 약 600만명이 사망했다.…”(「소련형사회주의의 재검토」)

위에서 인용한 아파나세프교수의 비판은 바로 사

서 생각해 낸 構造이며 전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된 농업구조이다. 실제로 콜호즈는 國家색타化하였고, 本質的으로 協同組合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명칭만 존재했을 뿐이다. 手工業協同組合도 폐지되었다. 이데올로기化한 無能한 獨裁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경제활동이 어떤 효과적인 형태로 폐절되었다.

셋째로 현실을 전혀 각색하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全體的인 像을 볼 때 가장 효율이 낮은 방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外延的인 발전의 길, 勞動資源과 物的資源의 浪費현상이 에스컬레이션하는 길, 官廳的 「開發」과 生産을 위한 生産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中央委員會政綱案의 경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國家的所有制와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발전을 沮害하였고 鄧小平의 말대로 「大釜(鍋)飯的 經濟」가 「貧困의 平準化」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이런 상태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말대로 “사회주의국가는 先進工業

제로서 전통적으로 해결되어 왔던 문제들이었다. ...

...

순수한 형태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獨裁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1917년부터 시작하여 항상 존재했던 것은 黨의 獨裁였다.

프롤레타리아트獨裁가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닌은 10월혁명 이전부터 黨에 의한 독재를 생각하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적 역할」이라는 마르크스 이론을 레닌은 「前衛黨」이론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前衛黨이라는 것은 완전한 黨獨裁로 변질하기 위한 객관적 전제조건이었다....” (「소련형사회주의의 재검토」)

위에서 인용한 아파나세프 교수의 말은 바로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는 프롤레타리아트獨裁라는 명분하에 一黨獨裁를 시현했다는 말이며, 그 결과 黨을 장악하고 있는 독재자의 절대적 권력을 출현 시켰다는 말이다.

中國社會科學院 政治學 研究所長이었고 趙紫陽 前總理의 1級브레인이었던 嚴家其教授는 오늘의 中

정치체제는 바로 反人民的·反民主的 體制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一黨獨裁 또는 1人獨裁下的 社會에서는 政黨 독재자의 侍女로서 權力和 富를 享有하는 관료들의 支配體制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노멘크라트라」(幹部候補者 名單에 登載된 階層)라는 특수한 支配集團이 형성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權力이 장악되어 거대한 官僚體制가 形成된다.

흔히 말하는 네가지 사회주의-「全體主義的 社會主義」, 「封建的 社會主義」, 「兵營的 社會主義」 그리고 「官僚的 社會主義」-중 그 어느 하나도 民主主義와는 먼 거리에 있는 정치체제이다.

이런 때문에 自覺한 知識人이나 눈뜬 民衆은 소련형 정치체제에 저항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누적된 불만이 一時에 폭발할 경우 차우세스쿠의 悲劇이나 天安門廣場의 비극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 反人間的 全體主義社會體制

그는 소련형 사회주의란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불리우던 사회주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經濟에서 道德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에 있어서 反國民的인 것, 自然에 반한 非人間的인 것 바로 이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에 사회주의가 있었는가? 어떤 곳에 사회주의가 존재했다는 말인가? 사회주의란 라벨이고 간판뿐이었다. 실제로 이 체제가 갖고 있는 것은 全體主義的인 統治形態 뿐이었다.

스탈린의 정치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아무리 평가하려 해도 평가할 수 없다. 그의 정치는 전체주의적이고 범죄적인 체제의 단계적 형성이었고, 이것이 목적인 것은 자기 인민에 대한 항시적이고 계통적인 戰爭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최초 5개년계획(1928—1932년) 동안에 불가江과 돈江을 잇는 運

그러나 새로운 인간이란 사전에 의도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기야 그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는 했다. 肉體的으로, 精神的으로 병든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成功하였다. 意識이 비틀어진, 정신이 왜곡된, 그리고 문자 그대로 肉體的으로 병든 인간을 만들어 내었다.……

그는 오랜 기간에 걸쳐 「凡庸적인 인간의 品種改良」을 자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현명한 사람은 모조리 학살되었으며 독창적인 思考를 하는 인간도 말살되었다. 사람들은 平準化되었고, 이로서 「凡庸적인 人間의 品種改良」을 실현하였다.

이런 현상은 바로 자기 국민과의 戰爭이었다. 수천만명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멸망하였다.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은 누구도 두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5,000만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이것이 10月革命의 結果이다. 3世代를 거치는 동안 5,000만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民族의 遺傳子 염색체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소련형 사회주의 재검토」)

너무나 우울한 사회, 차별이 있는 체제, 국민이
바라는 것을 듣기전에 이미 알고 있는 국가.

都市의 관광용 지도가 국가기밀로 취급되고 있는
국가.

언제나 선거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국가.

자기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국가.

歷史家가 政治家의 머슴이 된 국가.

병에 걸린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는 국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국가.

자기를 비판할 사람과 그 비판의 방법을 지정해
주는 국가.”(「사회주의의 고뇌와 新生」)

오늘날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서 인용한 네가티브·리스트를
검토해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소련에서는 70여년간, 동유럽, 중국,
북한에서는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다.

KGB에 의한 공포가 항상 모든 기관, 모든 가정,
모든 사람 위에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다.

ion」, 「건축, 건설」이라는 뜻의 合成語이므로 「reconstruction」, 「再建」이란 뜻이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란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改革」이라고 하였다. 근본적인 변혁이 없이는 사회주의국가의 누적된 모순은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이 말은 東유럽의 경우 정확히 들어 맞았다. 말 그대로 改革이 일어나 순식간에 40여년 지속된 사회주의체제가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버렸다.

改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989년 이후의 유럽은 사회주의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가. 政治體制의 變化

개혁이후 동유럽국가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한마디로 共產黨의 一黨支配體制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자체가 해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紙面관계로 동유럽 모든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펴

65%의 의석은 선거 이전에 공산당과 그 友黨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35%만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실시하고 보니 上院은 共産黨의 完全敗北, 下院은 共産黨의 99% 敗北로 나타나 下院의석 161席 중 단 한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렇게되자 어제까지 공산당의 友黨이던 정당들이 「聯帶」에 접근하여 야르젤스키 공산당 당수도 共産黨首班政權을 단념하고 「聯帶」主導의 마쵸비츠키政權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24名の 각료중 공산당은 국방, 내무, 운수 등 4名이 入閣했을 뿐이었다.

폴란드 공산당은 1990년 1월 당의 명칭을 「社會民主黨」으로 바꾸었고 1990년 12월 선거에서는 대통령에 바웬사가 당선되어 야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東獨의 경우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東獨共産黨의 당원은 230만이었다. 전체인구 1,700만 중 15%가 당원인 셈이었다.

그러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침몰하

이었던 바츠라흐 하벨(劇作家)이 대통령에 취임하는가 하면, 1968년 「프라하의 봄」 때 反革命罪로 당에서 추방되었던 알렉산드르·드브체크가 國會議長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나서 '90년 6월 自由選舉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市民포름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공산당은 정권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불가리아의 경우 '89년 11월, 35년간 당서기장을 지낸 지프코프가 해임되고 '90년 1월에는 당의 지도적 지위를 포기하였으며 '90년 4월에는 당명을 社會黨으로 바꾸었다.

1990년 6월에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사회당이 국민회의의 과반수(400석 중 211석)를 차지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데모에 의해 政情은 매우 不安하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89년 12월 16일 티미쇼아라에서 反차우세스쿠 데모가 일어난지 1주일 만인 12월 22일 차우세스쿠대통령 부부가 체포, 정규군과 保安警察軍간의 내전 그리고 12월 25일 차우세스쿠夫

포기와 헌법 제 6조의 개정, 政治的 複數主義 決定, 各 共和國의 主權宣言 등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변혁 이후 각국에서의 政治的 變化는 공산당 一黨獨裁의 붕괴와 民主化의 진척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國名이 거의 바뀌우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처럼 아무런 수식도 없는 國名, 人民共和國을 共和國으로 변경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聯邦共和國」이라 바꾼 체코 슬로바키아, 아직도 「인민공화국」을 그대로 지키는 불가리아, 그리고 완전히 나라의 이름을 잃어버린 東獨 등이다.

이러한 각국의 정치적 변화는 응당 對外政策의 변화를 가져와 西方국가와의 관계개선은 물론 「유럽국가로의 回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나. 經濟體制의 變化

蘇聯型 社會主義經濟體制의 특징은 한마디로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命令經濟體制의 비효율성을 이미 1930年代 전세계

볼때 지극히 명백하다. 個個의 企業이 採算性을 생각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으며, 國民經濟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收支計算없이 경영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경제체제란 수백만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大産業에서 조차 자기 기업이 赤字經營인지 黑字經營인지 조차 모르고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수만톤의 강철과 수십만톤의 시멘트, 수백만명의 勞動力을 투입하여 건설한 대규모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비례하여, 國民生活이 貧困해 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成長加速要因을 創出해 내지 못한 때문이다.

모든 공산국가의 경우 다 그러하지만 政權樹立後 集團化를 거쳐 重工業優先政策을 채택한 최초의 時期는 높은 발전 속도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높은 성장을 보장해주는 成長加速要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時期의 成長要因은 크게 보면 두가지라 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순수한 의미에 小규모 協同組合의 所有形態를 중시하는 나라도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는 土地의 再分配를 통한 個人所有制의 인정 또는 個人所有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請負生産制(土地의 임대생산)를 도입하여 生産物의 個人所有를 인정하게 되었다.

둘째로 이와같은 所有形態의 變化에 따라 生産管理와 經營面에서의 改革이 실시 되었다.

지금까지의 蘇聯型 社會主義 경제체제하에서는 모든 企業의 長은 黨과 政府에 의해 任命되었다.

농촌의 集團農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企業의 合理的 運營과 非效率性的의 除去를 위해서는 專門經營人이 기업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특히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獨立採算制에 의한 利潤의 극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非專門家인 黨官僚의 一方的 改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從業員의 선거에 의해, 또는 專門的 經營能力에 의해 長을 선택하게 되었다.

셋째는 모든 企業이 自己資本 調達制로 移轉하게

모든 商品이 國家價格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一部分目에 限하여 국가가격이 적용되고 대부분의 商品은 自由價格에 일임하게 되었다. 현재 소련에서 생산되는 製品の 종류는 2,500만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일일이 國家價格으로 統制하는 것도 不可能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一時에 自由化할 경우 올 혼란을 고려하여 國民生活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商品(食料, 電氣, 通信 등)은 國家價格으로 그외는 上限線만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전면 自由化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기해야 할 것은 이러한 價格改革을 통해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을 접근시켜 經濟의 國際化를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商品價格 특히 소비품가격이 앙등하고 있다.

여섯째로 賃金制度의 改革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적 의미에서도 당연하지만 社會에 만연되어 있는 「惡平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였다.

대부분 指標的 性格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各企業別 自主성이 강화되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변화는 아직 본격적인 市場機能을 발휘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소매시장은 존재하나 도매시장, 원료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기업은 여전히 國家機關의 統制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기업이 원자재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을때 市場機能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價格體系의 改革은 급속한 물가상승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약화되었던 國家統制機能이 再生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다. 社會的 變化

공산국가에서의 改革이 「위로부터의 改革」이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든 간에 누적된 國民의 不平과 不滿에 起因되었다는 점에서 國民의 基本權 擴大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은 대부분 구체제에 속해 있으면서 그 모순제거에 주력했던 改革勢力이다. 이들이 資本主義社會로의 급격한 이행을 불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東西獨의 統一과 함께 東獨의 改革을 주도했던 新포름이 유명무실한 存在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北유럽이나 오스트리아式 社會民主主義를 지향하는 政治·社會的 運動을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 세력은 民衆的, 民族的, 기독교적 勢力이다.

동독 공산정권 붕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신포름」세력도 바로 이런 세력이었고, 헝가리의 「민주포름」, 소농업자黨, 人民黨 등도 이런 세력이다.

이들은 자기나라의 傳統的인 革新方法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려 하며 지나친 西歐化와 부르주아化에 抵抗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民族主義的 性向이 대단히 강하다.

넷째 세력은 부르주아民主主義的 세력이다. 이

이런 상황에서 이들 東유럽국민이 택할 수 있는 思考의 指針은 西歐的인 思考이나 아니면 자기나라의 傳統的 思考이나 하는 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西歐 議會民主主義와 自由主義的 資本主義를 하루속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市民改革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後者の 경우는 이러한 혼란기에 준거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은 밖에서 도입한 어떤 原理(소련식 사회주의도 역시 밖에서 導入한 것이었다)가 아니고, 자기들 사회의 傳統的인 思想과 文化에 의거하여야 하며, 따라서 民族的·民衆的 原理에 근거하여 새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理念的 대립이 復古的·排外的 民族主義 傾向을 부추겨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 새로운 民族분규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東유럽에서의 社會變革은 이제 막 시작된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활시켰고, 自由選舉를 통해 民主的 政府를 수립하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民主主義는 亂立한 政黨간의 政治的 去來로 타락하고 말았다.

과연 이런 民主主義가 이들 나라 국민 속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몇몇 정치세력간의 흥정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는 民主主義가 아니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다시 한번 西歐議會民主主義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사고가 성장할때 소비에트의 民主主義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資本主義에 대한 不安이 증대하고 있다.

통일된 독일에서 舊東獨국민의 데모가 연이어 일어나며 개혁주의자들의 좌절감이 심화되고 있다.

동유럽국가에서는 事情이 다르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회구했던 市場原理가 導入되어 막상 市場型 社會主義로부터 市場經濟로 다시 資本主義經濟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치솟는 物價, 기업의 도산, 마피아의 등장, 失業增大, 급격히 강화되는 勞動規

정치적 민주주의를 획득하여 舊體制와의 비교를 통해 自由民主體制의 優越性을 실감하는 날이 빨리 와주기를 희망할 뿐이다.

社會主義國家의 變化相 (통일총서/16)

1991年 1月 5日 印刷

1991年 1月 10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 2 동 산73-13

電話：901-7120~4

(통연 91-1-6)

律, 각종 퇴폐산업의 번창 등 經濟倫理의 倒壞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資本主義의 좋은 점보다 나쁜점에 먼저 눈뜨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이들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資本主義에로의 轉移에 따라 더욱 不安感を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셋째로 舊體制의 붕괴에 따라 傳統的인 社會와 傳統的인 文化가 再生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民族主義의 再燃을 통해 自國의 正統성과 自己存在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意外의 方向으로 나아가 反動的民族排外主義를 배양하고 있다.

금기야는 蘇 聯邦까지도 解體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새로 등장한 정치 엘리트들이 슬기롭게 克服할 수 있을까?

이들의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돈은 있으나 物件이 없어 살 수 없는 나라도 있고 물건은 있으나 돈이 없어 못사는 나라도 있다.

바라건대 이들 나라 국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와

4. 結 論

최근 2년간 동유럽에서 일어난 變革은 말 그대로 地殼變動처럼 거대한 힘을 발휘하여 東·西獨을 統一하여 유럽에서의 冷戰體制를 종식하였다.

이제 共產主義란 말은 어떤 形容詞를 붙이든지 信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종언을 고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東유럽국가의 國民이 그들이 원하는 民主主義社會로 進入한 것은 아니다.

長期的으로 보아 각국이 共通적으로 직면한 問題點은 무엇인가?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民主主義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새로운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東유럽의 모든 개혁주의자들은 20여년의 긴 세월을 民主主義를 위해 투쟁하였다.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暴動, 1968년의 「프라하의 봄」 등이 바로 이를 위한 투쟁이었다.

1988년 이후 이러한 오랜 民主化鬭爭은 결실을 맺어 共產黨一黨獨裁를 붕괴시키고 多元主義를 부

세력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에도 저항하여 하루속히 西歐化, 資本主義的 社會建設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동유럽국가에는 대체로 네가지 세력간의 치열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새로 등장한 세력들은 行政的 經驗이 거의 없는 세력인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와중에 개혁은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난관은 經濟的인 것이다. 개혁이 한참 진행되어 경제적인 再建이 시급한 時點에 걸프 戰爭이 발생하여 모든 東유럽국가들이 극심한 경제적 불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改革에 대한 國民的 期待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치솟는 物價와 마피아의 경제교란 책동으로 더욱 어려운 局面에 들어 가고 있다.

급격한 權威의 붕괴로 이데올로기적 아이덴티티를 잃어 버린 국민에게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國民投票制가 널리 사용되고 刑法이나 刑事訴訟法의 毒素條項이 改正되었으며 黨에 의한 國家機關支配가 후퇴함에 따라 國民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罷業權이 보장되었고 言論, 集會, 出版, 結社, 信仰의 自由가 확보되었다.

지금까지의 개혁이 體制內에 形成되었던 中間管理層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앞으로의 改革은 非黨員의 새로운 中間層-지식인, 기업인, 소경영자 등 民主포름(社會民主主義의 성격)이나 自由民主聯 등(資本主義의 性格)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오늘날 東유럽국가에 등장한 주요 사회·정치세력을 구분해 보면 대체로 다음 네가지 세력으로 나뉜다.

첫째 세력은 舊體制派의 勢力이다. 이름은 바뀌어 社會黨 또는 社會民主黨으로 되었지만 이 세력의 여력은 만만치 않다. 아직도 政府機關의 대부분의 관료등이 이 세력이며 개혁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상당한 財力도 갖게 되었다.

둘째 세력은 民主主義的 社會主義勢力이다. 이들

열심히 일한자와 게으른자, 能力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差異를 두지 않고서는 人間의 創意力을 이끌어낼 길이 없는 것이다.

초기단계의 改革은 都給制 方式을 導入하여 實績에 따라 賃金差異를 두는 方式으로부터 職責이나 創意力發揮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일곱째는 土地去來가 自由化되기 始作하였다. 아직 農地自體에 대한 去來自由化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宅地나 야채밭, 별장지 또는 工場부지 등의 去來가 인정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는 不動產業者가 出現하였는가 하면 집단농장에 흡수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土地問題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中國에서는 農地나 山林의 경우 長期賃貸方式을 취하고 있으나,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外國企業에 판매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여덟째로 計劃化 方式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中央計劃의 命令的, 法律的 權威는 사라졌고

되었다 浪費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資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과거처럼 필요한 運營資金을 國家에서 調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銀行貸出을 받고 株式會社 制度를 導入하여 株를 發行하여 調達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利息을 고려하지 않거나, 收支計算을 무시한 기업경영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유럽 각국에서는 證券去來所가 등장하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國債券은 물론 各企業의 株式 등이 거래되게 되었다.

넷째로 金融制度의 개편이 전개되었다. 국립중앙은행이외에 商業銀行, 貿易銀行 등이 창설되어 企業이 必要로 하는 資金供給을 담당케 하였다.

國立中央銀行은 國家計劃에 의해 추진되는 基幹 産業分野에 대한 자금공급과 각종 市中銀行에 대한 資金供給 또는 巨視的인 金融政策을 담당하고, 市中銀行은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投資財源의 供給을 담당케 하였다.

다섯째로 價格制度가 개편되었다. 종래와 같이

그 하나는 革命이후 공산당이 제시한 未來의 靑
寫眞에 속은 근로대중의 生産熱意가 발동되었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집단화라는 原始的 資
本蓄積 方法으로 얻어진 資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加速要因이 時間이 지남에 따
라 消盡되어 버리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要因創出
(기술혁신, 경영혁신, 물질적 자극강화 등)에 실패
한 결과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의 黨指導者는 깨닫게 되었다.

때문에 모든 동유럽국가, 소련, 中國,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에서는 經濟改革의 초점을 非效率, 不
合理性 除去에 두었으며 市場機能을 부활시키고,
價格改革을 단행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제개혁의 내용을 간략히 열거
해 보자.

첫째로 들어야 할 것은 所有形態에 대한 改革
이다.

중전의 國家的 所有와 協同的 所有라는 「사회주
의적 소유형태」를 개혁하여 私的 所有形態를 인정
하였다.

경제학자들이 전개했던 大討論-「社會主義經濟 計算 論爭」-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었다.

新自由主義 學派의 거장 미제스나 하이에크는 市場메커니즘이 마비 내지는 결여된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價格」은 이미 財貨나 서비스의 귀중함을 나타내는 指標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社會의 모든 부문에서 經濟에 관한 計算을 중시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合理性」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命令經濟體制」(計劃經濟體制)는 ① 經濟計算이 불가능하다. ② 消費者 主權이 상실된다. ③ 需給을 자동적으로 균형지을 수 없다. ④ 기술혁신, 경영혁신이 지극히 불충분하게 진행된다. ⑤ 自由가 상실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命令經濟體制는 당초부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바로 이러한 지적이 오늘날에 와서 적중되었다고 할 것이다.

왜 사회주의경제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浪費經濟로 되었는가? 그 이유는 경제학의 논리에서

婦의 處刑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

동독, 불가리아, 체코 등에서 공산당의 극적인 몰락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平和革命」으로 끝났는 데 비해 루마니아에서는 말 그대로 流血革命이 전개되었다. 이로서 루마니아 공산당은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난리중에 權力을 잡은 것이 「救國戰線評議會」라는 조직이었다.

동 평의회 지도자였던 일리에스쿠는 본래 공산당 중앙위원 이었다.

1990년 5월에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救國戰線評議會」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일리에스쿠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재야세력은 “구국전선평의회는 옷을 갈아입은 공산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아직도 데모, 탄압의 악순환으로 不安한 政情이 계속되고 있다.

소련의 경우는 여전히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政治的 民主化는 크게 진전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90년 2월 5일 당 중앙위 확대회의에서 결의한 당의 지도적 역할의

는 화물선에서 도망쳐 나가는 쥐떼 처럼 당원의 탈당이 시작되어, 1989년 말까지 30%가 줄어 들더니 1990년에는 평균 하루에 1만명씩 탈당하였다. 이에 당황한 당지도부는 동년 2월 ① '90년 5월에 자유선거 실시, ② 당의 지도적 역할 포기, ③ 黨名의 民主社會黨으로의 변경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3월 중순에 실시된 東獨自由選舉에서 民主社會黨(구 공산당)은 東獨기독교민주동맹(西獨의 콜 수상이 영도하는 당의 姉妹政黨)에게 완전 패배하여 결국 西獨에 흡수통합되어 國家마저 상실되는 참담한 말로를 맞고 말았다.

체코의 경우 1989년 11월 17일 15,000명의 학생이 중심이 된 데모가 발생하자, 야케시 공산당정권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체코국민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7일간 연속 데모를 전개하여 결국 8일만에 야케시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다.

동년 11월 27일 체코공산당은 자유선거 약속, 공산당의 지도적역할 포기를 선언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反體制組織인 「77年憲章그룹」의 초대 대변인

불 여유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공산당의 정치적 몰락과정을 기술키로 한다.

헝가리의 경우 1989년 10월 黨大會를 개최하고, 黨名稱을 「社會黨」으로 개칭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당의 지도적역할, 民主集中制 등 이른바 공산당이 지녔던 모든 특징과 특권 전부를 포기하였다. 영국의 노동당이나 프랑스의 社會黨, 西獨의 社會民主黨, 스웨덴의 社會民主勞動黨의 정강정책을 모방하여 民主社會主義 政黨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舊 공산당은 1990년 3월과 4월의 自由選舉에서 온건 中道の 헝가리民主포럼과 保守的인 小農業者黨에게 완패하여 野黨의 말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경우는 1988년 여름부터 바웬사가 지도하는 솔리다르노스치(聯帶, 自由勞組)의 데모가 시작되자, 폴란드공산당은 이에 굴하여 「聯帶」와의 圓卓會議를 개최하여 1989년 6월 자유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때의 선거는 上院은 완전한 自由選舉, 下院은

현 이런 사회야 말로 조지·오웰의 정치소설 「1984년」에서 나오는 전체주의사회가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이 人間 본래의 기본권을 상실하고, 자기 노동에서 소외된 非人間化된 사회가 바로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사회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로자·룩셈부르크는 일찍이 “보통선거, 어떤 자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出版 및 집회의 자유, 자유로운 論爭—이런 것들이 없다면 모든 公共制度에서의 생활은 滅하여 거짓 生活이 되며 官僚들만이 制度의 活動的 要素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지만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바로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로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였던 까닭에 개혁이 일어났고, 때문에 「歷史의 必然性」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3. 改革 이후의 東歐諸國의 變化

러시아語로 「페레스트로이카」란 「페레」-영어의 「re」, 「再」라는 뜻이고, 「스트로이카」란 「Construct-

이상에서 인용한 아파나세프 교수의 지적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폴란드 출신의 저명한 철학자인 코라코프스키 교수(영국 옥스포드대학 교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가짜 사회주의 사회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줄곧 경찰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회.

자기 의견을 말하면 不幸하게 되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지낼수 있는 사회.

해외여행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지 않는 국가.

간호부 보다 스파이가 많고 병원보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국가.

일하는 근로자보다 重役이 더 빨리 늘어나는 국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서는 지낼수 없는 국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정할 수 있지만, 국민이 정부의 권한을 결정할 수 없는 국가.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고립된 국가.

河가 생겼고, 새로운 공장도 세워졌다. 그러니 잘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장은 노예화된 囚人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농민이 추방되고 集團化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아가 강제적인 집단화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수백만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들이 바랐던 것은 土地를 경작하고 자기 노동의 成果를 팔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일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스탈린의 政治目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目的은 인민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 농민을 노예화하고, 그들의 노동을 무상으로 빨아 들이고, 그들의 자금을 몰수하여 자기가 원하는 近代産業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유일한 수단으로 대량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테러와 폭력에 의해 사회는 크게, 깊게 그리고 급격히 개조되었고, 이것을 통해 스탈린주의라는 것이 확립되었다.

그는 또 새로운 인간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스탈린時代는 물론 198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에서의 국민의 부자유한 생활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당시를 살아온 수천만 국민이 例證하고 있다.

아파나세프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를 훑어 보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야 마땅하다. 고르바초프 보다 먼저 이런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다. 사하로프博士나 反體制人士들이 그들이다.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갈길을 걸어 왔을 뿐이다.

만약 지금이 10년전의 브레즈네프시대 였다면 오늘 우리들이 말한것 때문에 몇번씩이나 7+5를 받았을 것이다. 收容所 7년과 流刑 5년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反體制人士들은 흔히 이러한 判決을 받았다. 오늘에는 폐지되었지만 刑法 제70조에 규정된 소비에트사회·국가체제에 대한 계획적 中傷이라는 이유로 이런 처벌을 받았다. 이 조문은 외국인과의 인터뷰 내용만 가지고도 7+5를 8회씩이나 선고 받아야 했다.”

國은 鄧小平 統治下의 典型的 專制政治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現代의 中國역사에서는 명의상 皇帝나 國王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共和國」이라는 이름 뒤에, 또는 「社會主義」라는 깃털로 장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專制政治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中國의 現 專制制度의 體制上의 현저한 특징은 다음 세가지 이다.

첫째 특징은 國家의 最高權力은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며 이 권력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구와도 分割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특징은 個人의 손에 집중된 최고권력의 移讓은 生前에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특징은 최고권력계승에는 序列이 없다는 것이다.……

現代 中國에서 과거의 毛澤東이나 오늘의 鄧小平은 皇帝의 칭호를 갖고 있지 않은 皇帝이며 實質的인 獨裁者이다.……”(「中國은 결코 共和國이 아니다」)

위 嚴家其교수의 글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의

國家의 科學技術的 植民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革命的 改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 反民主的 一黨獨裁體制

1917년 10월혁명이후 7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주의국가 국민들은 거의 「政治에 대한 無關心」으로 살아왔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레닌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이 國民과 약속한 公約중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나세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917년 혁명당시 불세비키가 약속한 것중 어느 하나도, 아니 단 한가지도 실행된 것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권력문제에 있어서도 소유관계에 있어서도 어느하나도 약속처럼 된것이 없다.

.....

1917년 10월에 해결하기로 했던 문제들은 모두가 그 本質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과

회주의 경제체제의 始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이런 方式이 보편 타당한 人類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얼마나 동 떨어진 방식이었던가를 보여 준다.

이렇게 시작된 경제가 잘 될리가 없었다.

고르바초프大統領의 경제자문위원이며 소련과학 아카데미 會員이고 동 아카데미 經濟學部 黨書記인 샤탈린교수는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全體主義的 國家所有가 破産했다는 것이다. 經濟的 準則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準則에 따라 國家的 所有를 모든 곳에 심으려 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문제의 근원으로 되었다.

생산의 低效率, 科學技術 進歩分野의 만성적 落後, 生産物의 高品質保障의 無能力, 消費部門을 무시한 生産部門에의 편중 등의 문제를 낳은 것은 바로 全體主義的 國家所有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로 非效率的인 형태의 農業制度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黨官僚들이 자기의 政治= 이데올로기적 과제를 해결할 목적에서 農民國家에

고 抑壓的인 방법으로 工業化와 近代化를 위한 「原始的 蓄積」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기에다 사전 계획없이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大修正은 수없이 반복되었다.

아파나세프教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917년 10월혁명 직후 우리는 國家社會主義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가진 모순을 인식하여 1921년 新經濟政策(NEP)으로 전환하였다. 만약 NEP의 原則을 심화시키고 발전시켰더라면 人類全體가 발전하는 길에 들어 설 수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다. 즉 1917년에 수립했던 그 本來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수정했었다면 다시 人類와 합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理念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社會主義」란 무엇인가라는 이념이 문제였다. 私的所有, 私的經營, 經濟的 多樣化 등 NEP가 가져왔던 모든것이 이 社會主義라는 이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經濟的 成長은 다양성과 자기 노동의 成果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을때만이 실현되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큰 것일까”라고 쓰고 있다.

보로비요프의 말은 오늘날 소련사회주의경제의 파탄은 그 원인이 레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옳은 말이다.

본래 마르크스의 敎理에 의하면 資本主義가 충분히 발달하여 완전 성숙된 그 時點에 비로소 社會主義革命은 歷史的 日程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말은 資本主義的 生産關係가 허용하는 최대한 까지 生産力이 성장하고 工業化가 진전되어 그 결과 資本家の 富가 최대로 성장하고 반면 프롤레타리아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貧困狀態에 빠졌을때, 비로소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한줌도 안되는 부르주아지와의 계급투쟁을 통해 權力을 장악하고, 그동안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에서 축적된 富를 國有化, 내지는 公有化함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獨裁를 수립하고 사회주의의 최종단계인 공산주의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는 資本主義 國家에는 충분한 財貨가 축적되고 生産力이 포화상

“오늘의 변화는 일어날 것이 일어난 것 뿐이다. 고르바초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명백히 그가 수행한 역할은 대단히 크다.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오늘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그 이전의, 러시아혁명 이래의 蘇聯歷史가 必然적으로 요구했던 바로 그것이다.”

대단히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레닌을 비롯한 각국 공산당의 모든 지도자가 資本主義가 망하고 社會主義가 도래하는 것은 「歷史發展의 必然的 結果」라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社會主義가 붕괴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레닌이 수행한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소련을 비롯한 모든 社會主義國家에 수립되었던 社會主義體制의 공통적 특징-矛盾의 擴大再生産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안된다고 나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스탈린 사망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 그것이 억압을 감퇴시키는 것이라면 환영해야만 했던 것이다.

흐루시초프가 지향했던 것은 經濟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고, 또 억압을 감퇴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이 오늘날 명백해졌다. 왜냐하면 경제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문화면에서도 자유를 허용하면서, 정치적으로 一黨獨裁를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부터 社會主義體制는 야금야금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코라코프스키교수의 말은 마땅히 개혁해야 할 정치 부분에서는 개혁하지 않고, 一黨獨裁體制를 계속 유지하려 한 때문에 사회주의경제는 더욱 현저한 不振相을 보이게 되었고, 이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여러가지 經濟改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결국 指令的社會에서 經濟시스템만의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